동북권

•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5.7% 상승

- 전년동월대비 +5.7% = 소매업의 기여도 +1.4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4.3%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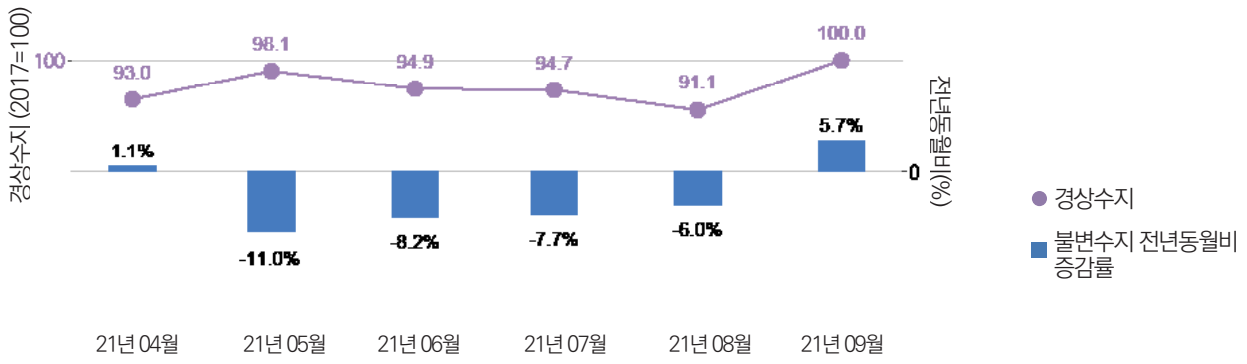
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
관련 설명은 부록의 '기여도'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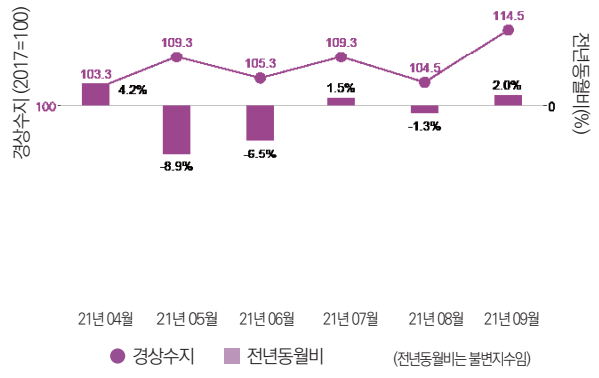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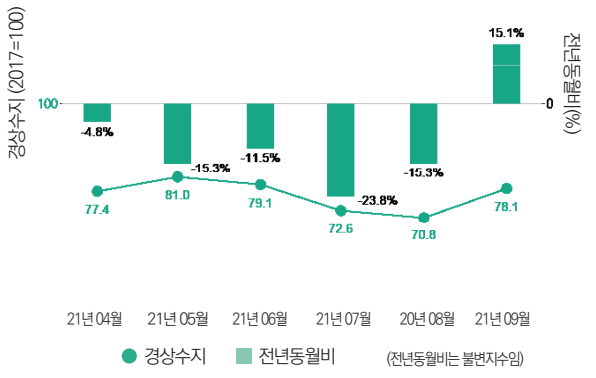
•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2.0% 상승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15.1% 상승

- 전월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하락했던 동북권 소매업(8월, -1.2% ⇨ 9월, 2.0%)도 9월 들어 상승으로 반전. 의복·섬유·신발(8월, -8.7% ⇨ 9월, 19.2%), 문화·오락·여가(8월, -1.6% ⇨ 9월, 8.8%) 등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등하고, 기타상품(16.7%), 무점포소매(10.8%), 음식료품(9.9%) 등의 매출 상승세에 기인. 그러나 동북권 소매업은 서울 권역 중에는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며, 특히 동북권 종합소매(-7.0%)는 2020년 내내 부진을 면치 못함
  - · 9월 동북권 소매업은 의복·섬유·신발, 기타상품, 무점포소매, 음식료품, 문화·오락·여가 순으로 소비증가
  - · 반면 연료, 기타가정용품, 가전제품·정보통신, 종합소매 순으로 소비부진
- 8월 부진을 나타냈던 동북권 숙박·음식점업은 주점·커피전문점(8월, -6.1% ⇨ 9월, 74.9%), 숙박(8월, -5.8% ⇨ 9월, 30.2%), 음식점(8월, -18.4% ⇨ 9월, 4.2%) 등 세부 업종 모두 9월 들어 상승으로 반등. 특히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동북권의 음식점 소비경기지수가 (코로나19 이후) 처음으로 (전년동월대비) 상승
  - · 9월 동북권 숙박·음식점업은 주점·커피전문점, 숙박, 음식점 등의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소비증가

| 동북권 소비경기지수 |



| 동북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|



| 동북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|